

# 친족호칭어의 통시적 고찰\*

— 친족호칭 ‘公’과 ‘私’를 중심으로

유현아\*\*

---

◁ 목 차 ▷

---

- I. 들어가는 말
  - II. 친족호칭 ‘公’의 기원 및 발전변화
    - 1. 친족호칭 ‘公’의 기원
    - 2. 친족호칭 ‘公’의 의미변천
  - III. 친족호칭 ‘私’의 기원 및 발전변화
    - 1. 친족호칭 ‘私’의 기원
    - 2. 친족호칭 ‘私’의 의미변천
    - 3. ‘자매의 남편’을 부르는 친족호칭의 통시적 고찰
  - IV. 나오는 말
- 

## I. 들어가는 말

친족호칭은 일반적으로 혈연이나 혼인에 의해 성립되는 인간관계의 호칭으로 정의할 수 있다. 혈연관계는 모든 사회관계의 기초가 되며, 인류 최초로 형성된 사회관계이기도 하므로, 혈연관계를 반영하는 호칭이 모든 호칭 중에서 가장 빨리 생겨났고, 사용빈도도 높으며, 그 역사도 가장 유구하다. 또한 혈연관계는 매우 안정적이어서 변화가 지극히 적고, 이와 같은 특징은 호칭에도 반영되어 친족호칭의 변화 또한 거의 없다. 그러나 변화가 거의 없는 친족호칭이라 하더라도 사회 역사 문화적 발전 변화에 따라서 존폐의 영향을 받기도 한다.

혼인 관계를 통해 만들어지는 여러 개념은 대부분 친족 호칭 속에 반영되는 경향

---

\* 본 연구는 2014학년도 경기대학교 학술연구비(일반연구과제)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 경기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조교수

이 있다. 일찍이 서양의 문화인류학 및 민속학 학자들은 이 점에 착안하여 친족 호칭과 혼인제도의 관계에 대해 연구해 왔다. 모건(Morgan)은 《고대사회》에서 이리 퀴이 족 및 하와이의 폴리네시아인의 친족호칭 연구를 통해서 친족관계와 친족제도를 연구하고, 당시 학풍의 주류이던 진화론을 적용하여 혼인제도에 기초한 가족제의 발전 형태를 고찰함으로써, 인류문화가 몽매한 시대에서 야만의 시대를 거쳐 문명의 시대로 발전하는 진화과정을 탐구하였다.<sup>1)</sup> 모건이 탐구한 이 현상은 서양 사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중국 사회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호칭으로 출현 시기가 비교적 빠른 ‘公’과 ‘私’를 들 수 있다.

본고에서는 문헌의 용례 및 주석 분석을 통해 ‘公’과 ‘私’에 대해 통시적으로 고찰함으로써 각각의 기원 및 의미의 변천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언어적인 요소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은 사회문화적 요소와 결합하여 고찰하고, 더 나아가 이 두 호칭을 통해 고대 중국의 혼인제도 및 사회제도의 변천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 II. 친족호칭 ‘公’의 기원 및 발전변화

### 1. 친족호칭 ‘公’의 기원

친족호칭 ‘公’의 지시대상은 ‘할아버지, 아버지, 시아버지, 시어주머니’ 등으로 비교적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說文》에 의하면, 「公은 고르게 나누다는 뜻이다. 八, 厶를 따르는 회의자로, 八은 背의 뜻이다. 韓非子是 私와 반대되는 것이 公이라고 하였다(公, 平分也. 從八, 從厶. 八猶背也. 韓非曰: 背私爲公.)」고 하였고, 《白虎通疏證·爵》에는 「公은 通과 같다. 公正무사함의 뜻이다(公者, 通也, 公正無私之意也.)」라 하였다. 이와 같은 풀이에서 본다면 ‘公’은 호칭과 아무 관계가 없으며, 오히려 ‘균등한 분배’, ‘公正’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원시사회의 공동체조직에서 기원하였다고 볼 수 있겠다. ‘公’은 갑골문과 금문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문자로, 《甲骨文字典》에서는 「항아리 입구의 형체를 본떠 만들었고, ‘甕’의 初文이다. 갑골

1) 루이스 헨리 모건, 최달곤·정동호 역, 《고대사회》(서울, 문화문고, 2005)

卜辭에서는 ‘王公의‘公’으로 가차되었다(象龔口之形, 當爲龔之初文, 卜辭借爲王公之公.)」라고 풀이하고 있다.<sup>2)</sup> 즉 갑골문에서의 ‘公’은 ‘항아리 주둥이’라는 本義와 상관없는 작위를 나타내는 사회적 호칭으로 사용된 假借義라는 것이다.

갑골문에는 《說文》과 달리 ‘공공, 공평’의 뜻으로 사용된 예문은 보이지 않고, ‘선조’의 뜻으로 사용된 예문이 보인다.

- ① .....至於多公, 王受.....(《甲骨文合集》 27495)
- ② .....升歲於多公.....(《甲骨文合集》 34296)
- ③ 辛亥, 貞壬子又多公歲. 必又於大歲卒.(《甲骨文合集》 33692)
- ④ 辛亥, 貞壬子又多公歲. 必又於大[歲]卒.(《甲骨文合集》 33693)

모두 商王이 ‘多公’, 즉 商왕실의 여러 선조들에게 제사지내는 내용을 기록한 것으로, 殷商시대의 甲骨卜辭의 내용에 의하면, 이 시기의 ‘公’은 위의 예문처럼 모두 ‘선조, 조상’의 호칭으로 사용되었고, 최초 假借義인 ‘公共, 公平’의 뜻으로 사용된 예문은 보이지 않는다.

언어 발전의 규율에서 보면, 새로운 사물이나 현상의 출현 순서와 그것을 반영하는 의미의 출현 순서는 서로 일치해야 마땅하다. 언어는 사회조직의 부산물로서 사회의 발전을 따라 변화하기 때문이다.<sup>3)</sup> ‘공평’, ‘공공’의 개념은 공유제의 기초 위에서 생겨났고, 이와 반대로 작위명인 ‘王公’의 ‘公’은 사유제 하의 계급사회에서 생겨난 개념이다. 사회제도가 공유제에서 사유제로 변화 발전하였다는 것이 의심할 바 없는 사실이라고 한다면, 어째서 갑골문은 사유제의 개념으로, 《說文》에서는 공유제의 개념으로 글자를 풀이하였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갑골문의 예문에 출현한 ‘公’은 모두 ‘선조’의 뜻으로 사용된 引申義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갑골문은 중국 최초의 문자로 알려져 있으나 이미 상당히 완벽한 체계를 갖추고 있는 문자이므로 분명히 갑골문 이전의 원시문자가 존재했을 것이라는 설이 지배적이다. 그렇다면 최초의 假借義인 ‘공평분배’에서 ‘선조, 조상’의 뜻으로 引申되어졌다는 것은 그 중간에 분명히 일련의 변천과정이 존재했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 과정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2) 徐中舒, 《甲骨文字典》(四川, 四川辭書出版社, 1998), 71쪽.  
 3) 나상배, 하영삼 역, 《언어와 문화》(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169쪽 참조.

## 1) 사회제도와의 관계

殷商이전의 원시사회 말기는 농업의 발전을 통해 남성이 생산 분야에서 점차 주도적 지위를 차지하게 되면서 원시공동체조직과 사회관계의 변화를 촉진시켜 모계 씨족사회에서 부계씨족사회로 변화해가는 과도기이다. 엥겔스는 부계씨족공동체와 사유제는 거의 동시에 발전하기 시작하였고, 부권제의 형성이 사유제와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다.<sup>4)</sup> 그러나 부계씨족사회가 시작되면서 바로 공유제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던 것 같다. 여러 문헌의 기록으로 보건대, 부계씨족사회 초기의 일정기간 동안 여전히 공유제가 유지되었고, 모든 재물은 씨족 내 모든 구성원에게 속해 있었다. 《說文》의 풀이는 물론, 《玉篇》의 ‘公은 고르다, 바르다의 뜻이다(公, 平也, 正也)’라는 풀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⑤ 以公滅私, 民其允懷.<sup>5)</sup>(《書·周官》)

(공적인 것으로 사적인 것을 없애면 백성이 진심으로 귀의한다.)

⑥ 公, 共也.(《廣韻·東部》)

(公은 공통이란 뜻이다.)

⑦ 凡萬物異則莫不相爲蔽, 此心術之公患也<sup>6)</sup>.(《荀子·解蔽》)

(무릇 만물은 서로 다르므로 서로 가리지 않음이 없었는데, 이것은 마음의 공통된 근심거리인 것이다.)

⑧ 言私其縱, 獻豨于公.<sup>7)</sup>(《詩·豳風·七月》)

(작은 돼지는 사사로이 갖고, 큰 돼지는 公所에 바치노라)

이상의 문헌에 사용된 예문을 보면, ‘公’은 공유제의 성질을 반영한 ‘公共, 公平, 公家’의 假借義이다. 그렇다면 왜 《說文》보다 출현시기가 훨씬 앞선 갑골문의 예문과 풀이는 사회제도의 출현과 상반되는 순서로 나타난 것일까? 이는 《說文》이 ‘公’의 소전체에 근거하여 자형풀이를 하였다는 점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4) 徐連達 외 2인, 중국사연구회 역, 《중국통사》(서울, 청년사, 1994), 32-36쪽 참조.

5) 孔安國의 傳에도 ‘從政以公平滅私情, 則民其信歸之.’(정치를 함에 있어 공평함으로써 사사로운 정을 없애면 백성이 믿고 귀의한다.)라고 풀이하였다.

6) 楊倞도 ‘公, 共也.’라 주해하였다.

7) 毛傳에 ‘大獸公之, 小獸私之.’(큰 짐승은 公所에 바치고, 작은 짐승은 사사로이 가진다)라고 풀이하였다.

《說文》은 ‘公’의 자형을 ‘從八，從厶.’라 분석하였는데, 八은 背의 뜻이고, 厶는 私의 本字이다. 그리고 《韓非子·五蠹》편에도 「옛날에 창힐이 만든 글자로, 스스로 에워싸는 것을 私라 하고, 私와 반대되는 것을 公이라 한다. 公私가 서로 등지는 것을 창힐은 본래 알고 있었다.(古者蒼頡之作書也，自環者謂之私，背私謂之公。公私之相背也，乃蒼頡固以知之矣.)」라고 하였다. 이들이 ‘公’의 풀이에 사용한 ‘私’의 사유개념은 원시 공유제 이후에 생겨난 것으로, ‘厶’자는 戰國시기 玉璽문자에 처음 출현하였다. 그에 반해 ‘公’자는 갑골문과 금문에 이미 존재하였으므로, 《說文》과 《韓非子》의 풀이는 형체에 근거하여 뜻을 구함으로써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sup>8)</sup> 다시 말해서, 글자가 잘못 변형된 후의 자형에 근거하여 풀이한 것이므로 틀린 것이라고 보아야 하며, 《說文》의 풀이는 本義가 아니다.

## 2) 의미 파생의 과정

‘公’은 본의와 관계없이 가차된 의미가 오랫동안 사용되다보니 가차의가 사회제도 및 혼인제도 등과 끊임없이 의미적 상관관계를 맺으며 새로운 뜻을 파생시켜 왔다. 그런데 그 의미계통의 발전 맥락이 비교적 복잡해서, 언어와 문화를 함께 연결하여 생각하지 않는다면 전체 의미항목의 연계성을 이해할 수 없게 된다. 즉, 의미의引申관계만으로는 ‘公正, 公平’의 뜻과 호칭인 ‘조상, 선조’의 사이에서 의미 파생의 연관성을 찾기는 어렵고, 단지 둘 사이에 과도기적인 부분이 존재할 것이라고 짐작만 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고대 중국 사회는 부계씨족공동체사회로 전환된 초기에 공유재산의 관리를 책임지고, 공공 업무를 처리하며, 가정의 구성원에게 전통습관을 교육하고 생산 활동의 조직과 생활의 안배 등 다방면에 걸친 지도자가 필요하게 되었다. 즉 공유제를 구체적으로 관장하는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 역할을 남성 연장자가 하게 되었던 것 같다. 이는 씨족 구성원들이 손아래든 동년배이든 그러한 명망 있는 연장자를 일러 ‘公’이라고 부른 고대 중국어의 예문 등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공유제를 유지하고 주관하는 남성 연장자는 덕망이 높아서 자연스럽게 씨족의 우두머리로 추천되었다. 周나라의 선조인 古公亶父와 公劉가 바로 그 대표적인 예이

8) 王琪, 〈親屬稱謂“公”“私”考〉; 《唐都學刊》 2006년 제3기, 119-120쪽 참조.

다.9) 씨족은 조상의 혈연관계로 결합된 공동체이고, 씨족을 유지하는 연결고리는 친척혈연관계이므로 이들은 조상숭배를 신봉하였다.10)

이상의 문화적 배경 하에서 ‘公’은 최초 假借義인 ‘公平, 公正’에서 ‘일을 공정하게 처리하고 명망이 혁혁한 연장자’라는 의미로引申되었고, 점차 ‘씨족의 우두머리, 수령’에서 ‘조상’의 호칭으로引申되었음을 알 수 있다.

## 2. 친족호칭 ‘公’의 의미변천

連劭名の 연구에 의하면, 갑골문에서 ‘公’이 친족호칭으로 사용된 것은 총 14차례이고 모두 ‘선조의 호칭’에 쓰였다.11) 제사 때, 商王이 조상을 ‘公’이라 존칭하였는데, 《詩·小雅·天保》에 「사시사찰 제사를 조상님과 선왕께 올리네(禴祀烝嘗, 于公先王.)」의 내용으로 보건대, 이 용법은 周代에도 계속 사용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한 외연이 친족호칭으로 확대되어 사용되면서, ‘公’의 지시대상은 할아버지, 아버지, 시아버지, 시아주머니 등으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다.

### 1) 할아버지

- ⑨ 子之公不有恙乎? (《呂氏春秋·異用》)  
(그대의 할아버지께서 병이 있는 것이 아니오?)
- ⑩ 此所謂公者, 祖也. (《通俗編·稱謂》)  
(여기에서 이른바 公이란 할아버지이다.)
- ⑪ 孫呼祖爲公者. (《陔餘叢考》卷三六〈公〉)  
(손자가 할아버지를 公이라 부른다.)

이상의 예문에서 사용된 ‘公’은 모두 ‘할아버지’를 나타낸다. 특히 예문 ⑨의 경우, 「子之弟子從遠方來者, 孔子荷杖而問之曰, 子之公不有恙乎? 搏杖而揖之, 問曰, 子之父母不有恙乎? 置杖而問曰, 子之兄弟不有恙乎? 杖步而倍之, 問曰, 子之妻子不有恙乎?」라 하여 ‘子之公不有恙乎?’의 다음에 차례대로 ‘父母兄弟妻子’에 대해서 물

9) 王琪, 〈親屬稱謂“公”“私”考〉: 《唐都學刊》2006년 제3기, 119-120쪽 참조.

10) 白芳, 《人際稱謂與秦漢社會變遷》, (北京, 人民出版社, 2010), 46-47쪽 참조.

11) 白芳, 上同, 46쪽 참조.

었으므로 ‘公’이 ‘祖父’를 지칭하는 것임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 2) 아버지

⑫ 將行，其子陳應止其公之行，曰：‘……魏欲絕楚、齊，必重迎公.’(《戰國策·魏策一》)

(그의 아들 진응이 아버지의 길을 저지하며 말하기를, “……위나라는 초나라와 제나라의 관계를 단절시키려고 아버님을 응송하게 맞아줄 것입니다.)

⑬ 公，父也。(《廣雅·釋親》)

(公은 아버지이다.)

⑭ 無久恩公爲也。(《史記·陸賈列傳》)

(아버지를 너무 오랫동안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⑮ 主人之公曰：“殺其不能鳴者。”(《呂氏春秋·必已》)

(주인의 아버지가 말하기를: “울지 못하는 기러기를 죽이시오.”라 하였다)

아버지의 뜻으로 사용된 ‘公’은 직접호칭, 지칭, 자칭 모두 가능하다. 예문⑫의 경우 직접호칭과 지칭이 모두 사용되었고, ⑭의 경우 陸賈가 자기 자신을 ‘公’이라 칭한 것으로 이를 통해 자칭으로도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 3) 시아버지

⑯ 宋人有嫁子者，告其子曰：‘嫁未必成也 有如出，不可不私藏。……其子聽父之計，竊而藏之。若公知其盜也，逐而去之.’(《淮南子·汜論》)

(송나라 사람중에 자식을 시집보내는 자가 있었는데 그 딸에게 말하기를, ‘시집 가도 반드시 잘 사는 것은 아니다. 쫓겨날 수도 있으니 사사로이 숨기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딸이 아버지의 계책을 듣고 몰래 모았다. 시아버지가 도둑질하였음을 알고 마침내 쫓아냈다.)

⑰ 不瘠不龔，不成姑公。(《釋名·釋首飾》)

(병어리인 척 귀머거리인 척하지 않으면 시부모 노릇 못한다.)

위의 두 예문은 모두 시아버지의 지칭으로 사용되었다. 이밖에, 《釋名·釋親》에 「남편의 형을 공이라 한다.(夫之兄曰公)」라는 기록을 통해 ‘시아주버니’를 나타내는 호칭으로도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으나, 이 뜻으로 사용된 예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다.

이상의 분석 고찰을 통해, 향렬이나 신분이 다른 일부 남자들이 씨족 또는 가족 중에서 중요한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서, 특히 봉건 가족제도 또는 종법제도가 형성된 후에 향렬원칙 및 윤리질서에 중요한 작용을 발휘하며 연장자는 존귀하고 나이 어린 자는 비천하다는 관념이 친족호칭 ‘公’의 지시대상으로 하여금 풍부한 의미장을 구성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의미 계통의 발전 맥락이 비교적 복잡한 친족호칭 ‘公’의 의미를 분석함에 있어, 친족호칭에 사용되게 된 본질적 이유를 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화 및 사회제도 등도 분석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함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 Ⅲ. 친족호칭 ‘私’의 기원 및 발전변화

#### 1. 친족호칭 ‘私’의 기원

‘私’는 고대중국어에서 자매들 간에 서로의 남편을 부르는 호칭으로, 비교적 이른 시기에 사용되었다가 사라진 친족호칭이다. 《詩》와 《爾雅》 등의 문헌 기록에 용례가 보인다.

‘私’의 本字는 본디 ‘厶’로, 戰國시기 玉璽에 몇 가지 字形으로 출현하였고, 玉璽에 나타난 자형들은 2장에서 언급하였던 韓非子の ‘自環者謂之私’의 풀이와 부합한다. 《說文》에서는 「私는 禾이다.(私, 禾也. 從禾厶聲.)」라 풀이하였다. 앞서 친족호칭 ‘公’의 의미변천을 살펴봄에 있어 문화적 요소를 결합하여 고찰하였듯이, 본 장에서는 ‘私’의 각기 다른 이 세 가지 의미 간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언어 및 사회 문화제도 등의 고찰을 통해서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친족호칭으로 사용되었다가 사라진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私’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첫째, ‘私’의 本義는 ‘남성의 생식기관’이다. 劉伯鑿은 郭沫若의 갑골문 ‘土’, ‘且’, ‘土’자 고석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厶’의 자형이 ‘土’자의 갑골문 자형들과 매우 유사하고, 자음도 비슷하다고 보았다.<sup>12)</sup> 따라서 ‘厶’는 남성의 생식기관을 상형화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sup>13)</sup>

⑱ 早有私病，不近婦人。(《飛燕外傳》)<sup>14)</sup>

(일찌기 생식기에 병이 있어서 부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

⑲ 諸道進私白者，閩中爲多，故宦官多閩人。(《資治通鑑·唐懿宗咸通六年》)

(각지에서 사백을 들이는데, 민이 가장 많았다. 고로 환관 중에 민사람이 가장 많았다)

‘私白’은 唐 선종 때 궁으로 들여보내는 거세한 남자 아이를 부르는 말인데, ‘私’가 바로 남성의 생식기를 말한다.

둘째, 남성의 생식기라는 뜻에서 ‘小便’ 및 ‘私通하다’의 뜻으로引申되었다.

⑳ 師慧過宋朝，將私焉。(《左傳·襄公15年》)

(악사 혜가 송나라 조정을 지나가는데 소변을 보려고 했다.)

㉑ 楚人將殺之，請寘之，既又請私。私於幄，加絰於纜而逃。(《左傳·昭公8年》)

(초나라 사람이 그를 죽이려 하자, 말과 옥을 버리겠다고 청하고, 이윽고 또 소변을 보겠다고 청하여 장막 안으로 가서 소변을 보는 척하다가 머리에 삼대를 쓰고서 도망쳤다.)

㉒ 臣鄰有遠爲吏者，其妻私人。(《戰國策·燕策一》)

(신의 이웃 중에 멀리 외지에 가서 벼슬을 하는 자가 있었는데 그 아내가 다른 사람과 사통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문 ㉑과 ㉒은 ‘小便’으로 사용된 예이고, ㉒은 사통하다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私’의 本義 및 引申義는 모두 직접 언급하기 불편한 의미

12) 그렇다면 사회제도, 친족호칭으로서의 ‘私’ 및 ‘公’의 대립된 개념으로서의 ‘私’는 후에 생겨난 것이라 하였다.

13) 劉伯鑾, 〈關於古漢語早期親屬稱謂“私”的研究〉; 《西北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1983년 제3기, 44쪽 참조.

14) ‘私’의 本義가 남성의 생식기임을 갑골문 자형을 통해서 증명하였으나, 漢나라 때로 문헌을 예로 든 것은 본문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말로 옮기기 힘든 의미라서 문헌 중에 거의 출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갑골문 시기에 이미 등장한 한자라는 전제하에서 아래의 引申義와의 인신관계 및 인신시기를 살펴보았으므로 인신시기가 부합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들이다. 따라서 ‘私’가 ‘士’ 등과 비슷한 字形을 가진 문자임에도 불구하고 갑골문을 비롯한 문헌 기록에 거의 출현하지 않았던 것 같다.

그렇다면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던 ‘私’가 어떻게 친족호칭으로 사용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이것은 아마도 당시의 사회제도 및 혼인제도에서 답을 찾아야 할 것 같다.

일부일처제의 혼인제도에서 ‘私通’이란 단어는 부적절한 행위를 의미하는 貶義語이다. 그런데 群婚制의 고급 단계인 푸날루아혼<sup>15)</sup> 시기에는 자매들끼리 남편을 공유할 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행위가 합법적으로 존재할 수 있었다. 이러한 혼인제도는 당시의 생산력 수준이 매우 낮았기 때문에 개체 가정마다 남성의 노동력이 필요하였으므로 생겨난 것이다. 따라서 이 당시의 ‘私’는 푸날루아혼제 하에서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성관계를 나타내는 것이었으므로, 그 행위의 대상인 사람을 부르는 호칭으로 반영된 것이다.

그렇다면 호칭과 관계없는 韓非子의 풀이는 어떻게 나오게 되었을까? 이것도 ‘公’과 마찬가지로 사회제도의 문제에서 출발하여야 할 것 같다. 푸날루아혼은 씨족제도에서의 공유제를 기초로 이루어진 혼인제도로, 당시에는 거의 모든 가정의 생산력 수준이 매우 낮았다.<sup>16)</sup> 그러나 농업사회로 발전하면서 일부일처제의 가정만이 생산 노동을 감당할 수 있는 체제로 변화하게 되었고, 이러한 변화를 따라 씨족공동체가 해체되면서 사회제도 역시 점차 사유제로 전환되었다. 사유제의 수립은 對偶婚<sup>17)</sup>의 불안정한 관계를 공고하게 하여 일부일처제로 발전시켰다. 따라서 일

15) 푸날루아혼이란 모건이 하와이에서 만난 원주민 가족을 통해 발견한 혼인 형태로서, 한 집단의 직계 및 방계의 여러 자매와 각자의 남편과의 통혼을 기초로 하고 있다. 자매간에 남편을 공유하는 관계에 있으나 자신들의 친형제와의 결혼은 금지하였고 점차 혈연 관계가 비교적 먼 남자형제와의 결혼도 금지하였다. 따라서 자매들이 공유한 남편들끼리는 서로 푸날루아(친밀한 동반자의 뜻)라고 불렀다. 반대로 남자도 역시 마찬가지다. 즉 푸날루아혼은 기존의 혼인형태를 무너뜨리고 아내를 공유하는 형제집단과 남편을 공유하는 자매집단이 혼인형태로 변모한 혼인문화이다. 熊焰, 〈上古漢語親屬稱謂與中國上古婚姻制度〉; 《暨南學報》1996년 제1기, 102쪽 참조.

16) ‘아들과 며느리는 부모가 모르는 재물을 가질 수 없으며, 몰래 저축할 수 없으며, 사사로운 목적으로 물건을 가질 수 없다. 또한 감히 남에게 사사롭게 빌려주거나 줄 수도 없다.’(子婦無私貨, 無私畜, 無私器, 不敢私假, 不敢私與.)라는 《禮記·內則》의 기록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

17) 대우혼은 남녀 한 쌍이 어느 기간 동안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하는 형식

부일처제는 자연적 변화에 의해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경제적 조건을 기초로 하여 만들어진 가정 형태라고 하겠다.<sup>18)</sup> 그러므로 이 토지 사유화는 한비자의 ‘自環者謂之私’와 의미가 부합되며, 《說文》의 풀이에 대해서도 납득할 만한 설명을 가능하게 한다. 민속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토지 사유화란 일반적으로 자기 집 주변의 땅을 개간하는 것에서 시작하고, 개간한 땅은 대개 돌이나 나무로 에워쌓아 낮은 담장을 만들어서 사유지임을 표시하므로, 한비자의 ‘私’에 대한 풀이와 완전히 부합한다고 하겠다.<sup>19)</sup>

마지막으로, 《說文》의 풀이는 남성생식기인 ‘厶’의 자형이 私田, 스스로 에워싸는 私有의 형상과 서로 부합하므로, 厶에 禾를 붙여 ‘私’자를 만들었다고 하였다. 《詩·大雅·大田》에 「우리 공전에 비를 내리고 마침내 내 밭에도 내려주네.(雨我公田, 遂及我私.)」라 하였으니 바로 이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私’는 지시대상이 복잡하고 기원이 서로 다른 단어이다. 고문자학의 각도에서 보면, ‘私’는 남성생식기의 뜻으로 성행위(푸날루아혼 시기는 합법적, 일부일처제 시기부터는 부적절한 성행위를 뜻함) 및 친족호칭 등을 나타내는 의미로引申되어졌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私田’, ‘私有’, ‘私禾’ 등의 의미를 나타낸다.

## 2. 친족호칭 ‘私’의 의미변천

《爾雅·釋親》에 「자매의 남편을 甥이라 하고, 여자는 자매의 남편을 私라고 부른다(姊妹之夫爲甥, 女子謂姊妹之夫爲私.)」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로부터 보건대, 漢代 이전, 자매의 배우자를 나타내는 호칭은 부르는 사람의 성별에 따라 ‘甥’과 ‘私’로 나뉘는 알 수 있다. 본래 남자는 長幼와 尊卑를 중시하므로 그 배우자도 장

이나, 부부 一方의 요구가 있으면 혼인관계를 해제할 수 있는 불안정한 결혼형태이다. 薛寧蘭, 〈一夫一妻制是人類社會的文明選擇〉; 《中國社會科學院黨校第33期進修班中國社會科學院黨校辦公室赴廣西壯族自治區邊境地區國情調研文集》 2009년 제6집, 281-282쪽 참조.

18) 劉伯鑒, 〈關於古漢語早期親屬稱謂“私”的研究〉; 《西北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1983년 제3기, 49-50쪽 참조.

19) 소수민족인 獨龍族의 실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王琪, 〈親屬稱謂“公”“私”考〉; 《唐都學刊》 2006년 제3기, 121쪽 참조.

유존비에 의거하여 호칭한다. 그런데 종법제도 하에서 여자의 지위는 종속적이므로, 그 배우자 또한 長幼尊卑를 따질 필요가 없다. 漢代에 자매의 배우자의 장유를 구분하는 단어인 ‘姊夫’와 ‘妹夫’가 출현하기는 했지만, 단지 서술성 호칭에 불과했을 뿐이다.

‘甥’은 남자형제가 자매의 남편을 부르는 것으로, 造字原理에서 보면 본래 본씨족이 아닌 異姓 남자를 지칭한다. 족외혼 시기에는 두 혼인집단이 대대로 혼인 관계를 맺어왔기 때문에, 甲과 乙 두 씨족 남자가 각각 乙과 甲씨족에게 출가하여 부부의 연을 맺었고, 이러한 혼인 형태에서 고모의 아들, 외삼촌의 아들, 처의 형제, 자매의 남편 등 네 부류의 남자들은 바로 본 씨족과 대대로 통혼한 異姓 씨족에서 나온 것이다. 그 중에서, 만약 甲 씨족의 형제는 乙씨족의 자매와, 乙씨족의 형제는 甲씨족의 자매와 결혼한다면, 이는 사실상 양방향으로 자매와 결혼을 하는 결과 이면서, 이종 간에 통혼하는 습속인 것이다. 따라서 자신의 자매의 남편이 동시에 아내의 형제이며, 아내의 형제가 바로 고모의 아들이거나 외삼촌의 아들이다. 바로 《爾雅·釋親》에서 말하는 「姑之子爲甥, 舅之子爲甥」과 같다. 그러므로 남자의 입장에서 ‘姊妹之夫爲甥’, 즉 자매의 남편을甥이라고 불러야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私’는 좀 다르다. 군혼제의 고급단계인 푸날루아 결혼제도 시기에는 자매가 남편을 공유하였으므로, 여자형제와 자매의 남편 간에 합법적 성관계가 존재하고 있었다. 따라서 ‘私’라고 부르고 불리는 쌍방의 관계는 서로 私적 행위가 있는 당사자들이라고 볼 수 있다.

② 齊侯之子 衛侯之妻, 東宮之妹, 邢侯之姨, 譚公維私. (《詩·衛風·碩人》)<sup>20</sup>  
(제나라 제후의 따님에, 위나라 임금의 부인이시고, 제나라 동궁의 누이에, 형나라 제후의 처제이시며, 담공은 형부가 되신다네)

위의 예문에 대해 毛傳은 ‘姊妹之夫爲私’라고 주석하였는데, 좀 더 깊이 살펴보면 ‘私’라는 호칭뿐만 아니라 ‘維’자를 통해서도 衛莊公의 부인인 莊姜과 형부인 譚公의 관계가 수상적임을 나타낸다. 이 시의 내용을 통해서 두 가지 상황을 이해할

20) 《釋明·釋親屬》에 ‘姊妹互相謂夫曰私, 言於其夫兄弟之中, 此人與己姊妹有恩私也.’라고 한 주해는 잘못된 것이다. 당시의 혼인제도가 이미 일부일처제로 변화한 상황이므로 ‘私’의 행위는 멸시를 받을 일임이 마땅하다.

수 있을 듯 하다. 첫째, 당시는 이미 일부일처제 사회로, 여자(/남자)가 이미 자신의 남편(/아내)이 있는 데도 자신의 자매(/아내)의 남편(/자매)과 사통하는 것이다. 이것은 푸날루아혼제의 잔재라고 볼 수 있겠다. 둘째, 결혼 형태는 발전했는데, 친족호칭은 여전히 푸날루아혼제의 친족호칭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친족호칭으로 사용된 ‘私’는 그 용례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 그것은 아마도 농업 사회가 되면서 혼인제도에 변화가 발생하고 자매가 남편을 공유하던 혼인풍습이 자매가 각기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는 문화로 대체되면서 특수한 친족호칭 ‘私’가 사라지게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아울러 농업사회로 변화되면서 일부일처제가 정착되고 그에 맞는 도덕관이 정립되면서 ‘私’라는 관계는 사회구성원에게 수용될 수 없는 금기어가 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를 대체하는 호칭이 등장하게 되는데, 漢代에 ‘姊夫’, ‘妹夫’의 호칭이 처음 보인다.<sup>21)</sup>

### 3. ‘자매의 남편’을 부르는 친족호칭의 통시적 고찰

친족호칭 ‘私’는 언어 문화적 요소가 강한 어휘로, 사회제도 및 경제제도의 변천에 따라 소실되었다. 시대별로 이를 대체하는 호칭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⑭ 湘東太守鄭澹, 敦之姊夫也. (《晉書·虞悺傳》)  
(상동태수 鄭澹은 敦의 매형이다.)  
⑮ 領軍元叉, 太后之妹夫也. (《魏書·京兆王傳》)  
(영군원차는 태후의 매부이다.)

姐夫의 호칭은 元明시기에 보인다.

- ⑯ 不是別人, 是魯齋郎強奪了我渾家去了. 姐姐, 姐夫與我做主. (《智斬魯齋郎·楔子》)  
(다른 사람이 아니라 魯齋郎이 내 아내를 빼앗아 가버렸소. 누님, 자형과 내가

21) 胡士云, 《漢語親屬稱謂研究》(北京, 商務印書館, 2007), 202쪽 참조.

처리할게요.)

㉞ 我那姐姐有三二十人近他不得，姐夫孫新這等本事也輸與他. (《水滸傳·第49回》)

(우리 누나는 남자 2,30명은 너끈히 상대할 수 있어요. 자형인 손신도 꼼짝을 못해요.)

이 호칭은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통용 호칭이 되어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밖에 ‘姊壻’와 ‘妹壻’는 漢代에 출현하였다.

㉟ 而固司馬蘇安欲全功歸固,即馳謂安得曰:“漢貴將獨有奉車都尉,天子姊婿,爵爲通侯,當先降之.”(《後漢書·耿弇傳附耿秉》)

(두고의 사마 소안이 공을 전부 두고의 공으로 하기 위해, 안득에게 말하길, “漢의 귀한 장수로는 오직 봉차도위 두고가 있으며 천자의 매형이며 작위는 통후이다. 마땅히 먼저 두고에게 항복해야 한다”고 하였다.)

㊱ 趙王倫執政,以琨爲記室督,轉從事中郎. 倫子琇,即琨姊婿也,故琨父子兄弟並爲倫所委任.(《晉書·劉琨傳》)

(조나라 왕 윤이 집정을 하게 되자琨을 기실독으로 삼았다가 종사중랑으로 임명하였다. 윤의 아들 琇는 琨의 매형이다. 고로 곤의 부자형제가 모두 윤에게 중용되었다.)

㊲ 幼爲妹壻陳群所賞.(《晉書·荀顛傳》)

(유가 매제 진군에게 상을 받다)

‘妹壻’는 ‘媼壻’라고도 한다. 《唐書·李密傳》에 보인다. 「往依媼壻雍丘令丘君明.(매제인 옹구 현령 구군명에게 찾아가 몸을 의탁하였다.)」

‘姊丈’, ‘妹丈’의 호칭은 魏晉時期에 나타났다.

㊳ 一日,他姊丈金有余來看他,勸道:“老舅,莫怪我說你.這讀書求功名的事,料想也是難了.”(《儒林外史·第二回》)

(하루는 그의 자형인 김유여가 찾아와서, 그에게 권하기를: “처남, 내가 이런 말을 한다고 닷하지 말게. 공부를 하여 공명을 구하는 일은 아무리 헤아려 보아도 어려워진 것 같아 보이네.)

㊴ 妹丈,這話也說得不對了.(《儒林外史·第五回》)

(매제, 이 말은 맞지 않소)

이상으로 자매의 남편을 부르는 친족호칭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 IV. 나오는 말

친족호칭의 통시적 연구는 단순히 언어현상만의 연구가 아닌 언어와 사회문화를 함께 연계하여 연구함으로써 그 호칭의 기원 및 의미 변천의 과정을 다각적으로 고찰해 낼 수 있다. 본문에서 살펴보았듯이, 비교적 이른 시기에 사용되었던 친족호칭 ‘公’과 ‘私’의 연구를 통해 고대 중국사회의 사회제도 및 혼인제도의 변천, 심지어 의식의 변화도 친족호칭에 자연스럽게 반영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친족호칭의 연구는 반드시 당시의 문화 및 사회제도 등을 함께 분석하여야 한다.

본고에서는 중국 고대에 비교적 이른 시기의 친족호칭인 ‘公’과 ‘私’의 분석을 통해 아래와 같은 특징들을 찾아낼 수 있었다.

첫째, 친족호칭 ‘公’은 本義가 아닌 ‘公平, 公正’이라는 假借義에서 인신되었고, 의미引申 과정에서 당시의 사회제도가 공유제에서 사유제로 변화하는 과정이 호칭에 반영되었다. 즉 부계씨족사회로 전환된 시기에 공유재산을 관장하는 능력과 덕망을 갖춘 남성 연장자가 필요하였고, 혈연으로 엮인 씨족사회에서 덕망을 갖춘 남성 연장자를 통해 조상숭배를 함으로써 조상이라는 호칭으로 자연스럽게 의미引申을 하게 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점차 지시대상이 확대되어 할아버지, 아버지, 시아버지, 시어주머니 등을 나타내는 호칭으로 사용되었다.

둘째, 고대 중국어에서 일정기간 사용되었던 ‘私’는 푸날루아혼 시기에 자매들이 남편을 공유하는 행위가 합법적으로 가능하였기 때문에 생긴 호칭이다. 그러나 공유제에서 사유제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생산노동력이라는 경제적 조건으로 인해 일부일처제가 정착되었고, 일부일처제 하에서의 ‘私’라는 호칭과 관계는 비합법적, 비윤리적인 행위 및 관계라는 의미가 부여되면서 이 호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漢代부터 이를 대체하는 호칭들이 생겨났다. 사회제도와 혼인제도의 변화가

매우 적극적으로 호칭에 반영된 경우임을 알 수 있다.

이상으로 친족호칭 ‘公’과 ‘私’에 대한 분석을 통해 중국고대사회제도와 혼인제도의 실질적인 측면을 살펴 볼 수 있었다.

중국은 오랜 역사기간 동안 종법제를 유지하여 온 사회로 친족호칭이 매우 발달하였다. 본고에서 편폭과 시간상의 제한으로 심도 있게 다루지 못하였던 사회제도 및 혼인제도에 대해서는 향후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아울러 복잡하고 다양한 호칭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호칭과 비교 분석함으로써 친족호칭문화 연구에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參考文獻】

- 루이스 헨리 모건, 최달곤·정동호 역, 《고대사회》, 서울, 문화문고, 2005.  
 유현아 〈중국 호칭어를 통한 친족문화 연구〉; 《비교문화연구》 제41집, 2015.  
 나상배, 하영삼 역, 《언어와 문화》,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徐連達 외 2인, 중국사연구회 역, 《중국통사》, 서울, 청년사, 1994.3.  
 高佳, 〈古漢語妾稱謂詞的文化解讀〉; 《中州學刊》, 2006.11.  
 唐娟, 〈從幾組親屬稱謂管窺古代婚姻制度〉; 《文教資料》, 2007.3.  
 白振有, 〈漢字蘊涵的婚姻文化〉; 《延安大學學報》, 2008.2.  
 王鳳陽, 《古辭辨》, 길림,吉林文史出版社, 1993.  
 白芳, 《人際稱謂與秦漢社會變遷》, 北京, 人民出版社, 2010.  
 王琪, 《上古漢語稱謂研究》, 북경, 中華書局, 2008.  
 王琪, 〈親屬稱謂“公”“私”考〉; 《唐都學刊》 2006년 제3기.  
 袁庭棟, 《古人稱謂》 사천, 四川教育出版社, 1994.  
 劉尚雲, 〈從“婚”字群漢字透視古代婚姻文化〉; 《牡丹江師範學院學報》, 2007.1.  
 劉伯鑒, 〈關於古漢語中早期親屬稱謂“私”的研究〉; 《西北大學學報》, 1983.3.  
 吳萌, 〈從《爾雅·釋親》中親屬稱謂詞探古代女性地位〉; 《赤峰學院學報》, 2012.11.  
 熊焰, 〈上古漢語親屬稱謂與中國上古婚姻制度〉, 《暨南學報》, 1996.1.  
 胡士云, 《漢語親屬稱謂研究》 北京, 商務印書館, 2007.  
 夏雨晴, 〈從《爾雅·釋親》妻黨”子目看早期社會的婚姻制度〉; 《宿州教育學院學報》, 2003.12.  
 薛寧蘭, 〈一夫一妻制是人類社會的文明選擇〉; 《中國社會科學院黨校第33期進修班中



國社會科學院黨校辦公室赴廣西壯族自治區邊境地區國情調研文集》2009년 제6집.

### 【中文提要】

“公”和“私”是比较早期出现的亲属称谓。“公”所指广泛，祖父、父亲、夫之父、夫之兄均称“公”。这与公有制下年长男子在父系氏族内部所处的领导地位有关，他们拥有安排和处理公共事务的权力。要之，“公”最初假借为反映公有制性质的“公共”，“公平”，由此可以引申为亲属称谓。

“私”是女子对姐妹之夫的称呼，来源于生产力水平低的普那路亚婚制，反映了姐妹共夫、女子与姐妹之夫存在着合法的性关系的事实。要之，私也是一个所指复杂、来源渠道不同的词。从古文字角度分析，一方面与牡器有关，引申出了表示亲属称谓等新义。另一方面，它又表示“私田、私有”等义。

透过“公”、“私”这两个亲属称谓词的分析，可以领会了中国古代的社会制度和婚姻制度的实际状况。

### 【主題語】

친족호칭, 公, 私, 공유제, 사유제, 푸날루아혼제, 일부일처제

親族稱謂, 公, 私, 公有制, 私有制, 普那路亚婚制, 一夫一妻制

kinship terms, 公(gong), 私(si), public ownership, private ownership,

punalua, monogamy

투고일: 2016. 4. 15 / 심사일: 2016. 4. 20~5. 5 / 게재확정일: 2016. 5. 15